

# 전통관목 장미속(*Rosa* spp.)의 수종 규정

정명석\* · 소현수\*\*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석박사통합과정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 Species Classification of Korean Traditional Shrubs *Rosa* spp.

Jeong, Myeong-Seok\* · So, Hyun-Su\*\*

\*MS/Ph.D. Integrated Program, Graduate School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Professor,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fine traditional shrub roses(*Rosa* spp.) by investigating their various historical names found in classical texts, medical books, and early modern literature, considering their introduction before modern times and their relevance to traditional culture.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14 Rosa species common to the Korean National Arboretum's National Standard Plant List and the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National List of Species were initially identified. Native species and naturalized plants with significant historical use and cultural symbolism, specifically *Rosa multiflora*(multiflora rose), *R. chinensis*(China rose), *R. rugosa*(rugosa rose), *R. davurica*(davurica rose), *R. acicularis*(prickly rose), and *R. xanthina*(yellow rose), were defined as traditional shrub roses.

Second, various names, such as "Jangmi(薔薇)," "Wolgyehwa(月季花)," "Yeongsil(營實)," "Maegoe(玫瑰)," and "Haedang(海棠)," introduced from China, along with vernacular terms reflecting morphological and ecological features such as "Jille(劄列)" and "Gamaguibapnamu," were used historically. This complexity in nomenclature originated from the absence of a systematic botanical naming convention before the modern period, compounded by local dialects and discrepancies with names introduced from China.

Third, *R. multiflora* was referred to not only as "Yajangmi(野薔薇)" but also by names emphasizing the medicinal use of its fruits, such as "Yeongsil" and "Dangguja(棠棣子)," and its thorny characteristics, such as Jieulli and Jille. *R. chinensis* was initially termed "Sagyehwa(四季花)," indicating its ability to bloom throughout the four seasons, and later adopted the Chinese synonym "Wolwolhong(月月紅)." *R. rugosa* was used interchangeably with the name "Maegoe(玫瑰)," whereas Korean native variants such as *R. davurica* and *R. acicularis*, which were recognized as mountain forms of *R. rugosa*, were also termed "Hongjangmi(紅薔薇)." Names such as "Yeolgu(悅口)" and "Ingamok(印歌木)" were used as vernacular terms for *R. davurica* and *R. acicularis*. "Hwangjangmi(黃薔薇)" and "Hwanghaedang(黃海棠)" referred to *R. xanthina*.

**Key words:** China Rose, Folk plant, Historic Garden, Multiflora Rose, Rugose Rose

### 국문초록

본 연구는 근대 이전 도입된 시간성과 전통문화와의 관련성을 조건으로 하여 유서, 의약서, 근대 서적에서 장미를 지칭하는 다양한 명칭을 고찰함으로써 전통관목 장미에 해당하는 수종을 규정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표준식물목록(KNA)'과 '국가생물종목록(NIBR)'에 공통적으로 제시된 국내 장미속(*Rosa* spp.) 14가지 수종을 추출한 후, 전통적으로 이용 빈도가 높은 자생종과 사전귀화한 외래종에 해당하는 짤레꽃, 월계화, 해당화, 생열귀나무·인가목, 노란해당화를 전통관목으로 규정하였다. 둘째, '장미(薔薇)', '월계화(月季花)', '영실(營實)', '매괴(玫瑰)', '해당(海棠)' 등 중국에서 전래된 명칭과 '劄列', '가마귀밥나무' 등 형태적, 생태적 특징을 반영한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것은 근대 이전 식물명명 체계가 없었던 사실에 기인하는데, 조선시대 지역의 향토성이 반영되어 복잡해지고, 중국에서 유입된 명칭과의 차이로 장미 수종명의 혼란을 만들었다. 셋째, 짤레꽃은 '야장미' 외에도 '營實' □

<sup>†</sup>Corresponding Author : So, Hyun-Su,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Seoul 02504, South Korea. Tel.: +82-2-6490-2848, E-mail : hss@uos.ac.kr

‘棠毬子(당구자)’와 같은 열매의 약용 명이나 ‘地乙梨(지을리)’ □ ‘찔뢰’라는 가시의 특징을 반영한 명칭이 사용되었다. 월계화는 조선 초 사계절 개화하는 생육 특성을 반영하여 ‘四季花(사계화)’라고 불렸고, 중기 이후 ‘月月紅(월월홍)’이라는 중국 이명도 사용되었다. 해당화는 ‘玫瑰(매괴)’와 혼용되었고, 조선시대 유서에서 중국 명칭과 차이를 확인하였다. 산에 사는 해당화로 이해되었던 인가목과 생열귀나무는 ‘悅口(열구)’, ‘印歌木(인가목)’ 등 향명 외에도 ‘紅薔薇(홍장미)’라는 이칭이 사용되었다. ‘黃薔薇(황장미)’와 ‘黃海棠(황해당)’은 노란 해당화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판단하였다.

주제어: 민속식물, 역사정원, 월계화, 찔레꽃, 해당화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역사정원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심화되고 국가유산청의 정책 기조도 정원유산의 진정성과 정체성 회복을 중심으로 한 보존·정비 원칙을 강화하고 있다[1]. 이러한 배경에서 정원 구성 요소로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수목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조경 이론 및 실무 체계가 충분히 확립되기 전부터 국가유산 조경 정비<sup>1)</sup>가 시행되면서[2], 공간 특성에 부합한 수종 선정과 식생경관에 대한 고증이 미흡한 사례가 발생하였다[3]. 또한 교목류에 비해 경관적 역할이 떨어지는 관목류는 비교적 쉽게 도입되었고, 관리 효율성을 고려한 현대적 식재와 정형적 수형 관리로 역사정원에 부적합한 식생경관을 고착화하였다.

그중에서 장미는 우리나라 문현과 도상 기록에 반복적으로 묘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외래수종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과거 역사정원에서 역할하였던 장미속의 수종들은 개항기 이후 외래종<sup>2)</sup>의 유입과 근대적 식재 및 관리 기법이 도입되면서 변형되어 상징성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여러 가지 장미를 포괄하는 장미속(*Rosa* spp.)(이하 ‘장미속’이라 한다)의 수종들을 전통수목으로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전통수목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황중락과 윤영활(1992)은 고문헌에서 조선시대 정원 수목명의 유래를 추출하였고[4], 공광성(2017)은 수목명의 혼효(混淆) 양상을 제시하였으며[5], 김승민(2014)은 전통수목의 이용과 상징성을 소개하였다[6]. 본 연구 대상인 전통관목 장미속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정우진 등(2014)은 이어의 『한정우기(閑情偶寄)』 종식부(種植部)에 기록된 덩굴성 장미를 다루었고[7], 배다니엘(2017)은 중국 고전시가에서 묘사된 장미, 매괴화, 월계화의 차이점을 고찰하였으며[8], 김소영(2019)은 한국 고문헌에서 장미, 월계, 사계, 매괴의 차이를 고증함으로써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전개하는데 기여하였다[9].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관목 장미속에 대한 연구는 개별 수종에 대한 이해에 집중하였으며, 장미속의 수종들을 전통관목

의 범위로 명료하게 한정하고 현대적 수목명으로 치환한 작업은 없었다. 장미속은 화색, 덩굴형과 직립형, 개화 시기 등 형태적, 생태적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고문헌의 정보를 구체적 수종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과거 장미속 수종을 이용한 문화를 토대로 전통수목을 규정함으로써 정원유산 내에 장미를 도입하는 적정한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 2. 연구의 방법

먼저 세계 장미속 중 국내 장미속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하여 대표성을 지니는 국가표준식물목록과 국가생물종목록을 기반으로 정리하였다. 도출된 목록에서 전통관목 장미속 수종을 규정하기 위한 전통수목의 범위를 시간성과 문화적 가치로 설정하였다.

한국학종합DB, 한국고전종합DB,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사서, 문집류에 기록된 장미속 수종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수종은 역자별, 문헌별로 다양하였다. 이에 『한국 식물 이름의 유래: 조선식물향명집 주해서』[10]를 참조하여 물명 관련 유서(類書), 전통 의약서, 근대 서적 등 문헌에 기술된 명칭을 분석하였다. 이를 근거로 문화적으로 이용된 장미속 수종을 찔레꽃, 월계화, 해당화, 생열귀나무, 인가목, 노란 해당화로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이에 해당하는 장미속 수종 명칭의 혼효 양상을 고찰하고 유래를 파악하기 위해 중국 고문헌, 의약서, 간행물을 고찰하여 분포나 생육 여건에서 기인한 수종별 특성을 정리하였다.

## II. 결과 및 고찰

### 1. 전통관목 장미속의 수종 규정

#### 1) 국내 장미속 목록

세계 장미속의 원종은 약 285종으로서[11] 이중 국내 장미속을 설정하기 위해서 국내 식물 분류의 공신력 있는 기준을 선정하였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의 『국가표준식물목록(KNA)<sup>4)</sup>』

과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국가생물종목록(NIBR)<sup>5</sup>』 두 가지이다(표 1). 국가표준식물목록에 제시된 학명은 『국제조류 균류식물명명규약(ICN)』을 따르고, 식물을 지칭하는 국명<sup>6</sup>을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에서 검토하여 목록화한 것이다 [13]. 다음으로 국가생물종목록은 『생물다양성협약(CBD)』을 보완하는 의정서로 채택된 유엔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를 근거로 하여, 생물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목록화되었다[14]. 현재 국내 장미속은 국가표준식물목록에 25종, 국가생물종목록에 17종이 수록되었는데, 14종은 동일

하지만 나머지 종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국내 장미속 분류 체계가 확립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국가생물종목록의 자생품종인 만첩해당화는 국가표준식물목록상 해당화에 포함되는 이명(*Rosa rugosa* Thunb. var. *plena* Regel)으로 정리되었다(표 1). 자생변종과 재배품종의 분류 범위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본 연구는 두 목록에서 동일하게 장미속 수종이라고 제시한 인가목 등 14종을 대상으로 한다.

표 1. 국내 장미속 목록과 종분류 [13][14]

번호	국가표준식물목록(KNA)		국가생물종목록(NIBR)		종분류
	국명	학명	국명	학명	
1	인가목	<i>Rosa acicularis</i> Lindl.	인가목	<i>Rosa acicularis</i> Lindl.	
2	국경찔레	<i>Rosa jaluitana</i> Kom.	국경찔레	<i>Rosa jaluitana</i> Kom.	
3	흰인가목	<i>Rosa koreana</i> Kom.	흰인가목	<i>Rosa koreana</i> Kom.	
4	돌가시나무	<i>Rosa luciae</i> Franch. & Rochebr. ex Crép.	제주찔레	<i>Rosa luciae</i> Franch. & Rochebr. ex Crép.	
5	용가시나무	<i>Rosa maximowicziana</i> Regel	용가시나무	<i>Rosa maximowicziana</i> Regel	
6	찔레꽃	<i>Rosa multiflora</i> Thunb.	찔레나무	<i>Rosa multiflora</i> Thunb.	
7	해당화	<i>Rosa rugosa</i> Thunb.	해당화	<i>Rosa rugosa</i> Thunb.	
8	동근인가목	<i>Rosa spinosissima</i> L.	동근인가목	<i>Rosa spinosissima</i> L.	
9	생열귀나무	<i>Rosa davurica</i> Pall.	생열귀나무	<i>Rosa davurica</i> Pall.	
10	목향장미	<i>Rosa banksiae</i> Aiton	목향장미	<i>Rosa banksiae</i> W. T. Aiton	
11	월계화	<i>Rosa chinensis</i> Jacq.	월계화	<i>Rosa chinensis</i> Jacq.	
12	노란해당화 <sup>3)</sup>	<i>Rosa xanthina</i> Lindl.	노랑해당화	<i>Rosa xanthina</i> Lindl.	재배·자생종
13	덩굴장미	<i>Rosa multiflora</i> Thunb. var. <i>platyphylla</i> Thory	덩굴장미	<i>Rosa multiflora</i> Thunb. var. <i>platyphylla</i> Thory	재배변종
14	왕찔레나무	<i>Rosa laevigata</i> Michx.	왕찔레나무	<i>Rosa laevigata</i> Michx.	외래종
15	민생열귀나무	<i>Rosa sileniflora</i> Nakai ex T. Kawamoto		—	자생종
16	대청가시나무	<i>Rosa taisensis</i> Nakai		—	
17	붉은인가목	<i>Rosa davurica</i> Pall. var. <i>rubro-stipulata</i> (Nakai) D.C.Son & Y.S. Kim		—	자생변종
18	흰생열귀나무	<i>Rosa davurica</i> Pall. f. <i>alba</i> (Nakai) T.B.Lee		—	자생품종
19	겹꽃밤해당화	<i>Rosa roxburghii</i> Sweet		—	
20	향인가목	<i>Rosa rubiginosa</i> L.		—	재배종
21	로사 글라우카	<i>Rosa glauca</i> Vill. ex Loisel.		—	
22	습지인가목	<i>Rosa palustris</i> 'Nuttallycna'		—	
23	밤해당화	<i>Rosa roxburghii</i> f. <i>normalis</i> Rehder & E.H.Wilson		—	
24	해당화 '로즈라이드 드 르헤이'	<i>Rosa rugosa</i> 'Roseraie De L'Hay'		—	재배품종
25	흰해당화	<i>Rosa rugosa</i> 'Alba'		—	
26	—		흑산가시나무	<i>Rosa kokusanensis</i> Nakai	자생종
27	—		털용가시	<i>Rosa maximowicziana</i> var. <i>pilosa</i> (Nakai) Nakai	자생변종
28	—		만첩해당화	<i>Rosa rugosa</i> f. <i>plena</i> (Regel) Bijk.	자생품종

\* 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12], 국가표준식물목록, 국가생물종목록 참조(2025.05.23. 기준)

## 2) 국내 장미속 종분류

국가표준식물목록은 ‘자생종(Native Plants)’, ‘재배종(Cultivated Plant)’, ‘외래종(Alien Plant)’으로 식물 종을 구분하였는데, 자생종은 일정한 지역에서 원래부터 살고 있던 야생식물을 의미한다[13]. 장미속에서 인가목, 젤레꽃, 해당화 등 9종이 해당된다(표 1).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ICNCP)』에 따르면, 재배종은 인간이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유지하는 식물로서 인위적 활동의 산물이다. 목향장미, 월계화, 노란해당화 등이 재배종이며, 덩굴장미는 재배변종으로 보았다. 여기서 변종(Variety)은 품종(Forma)과 함께 『국제식물명명규약(ICBN)』에서 사용되는 종 내 하위 분류군이다. 변종은 자연 상태에서 원종(Species)과 분명한 형태적 차이를 보이거나 지리적 분포가 다른 개체군이다. 한편 외래종은 자생종에 대응되는 개념이며, 본래 자생지 외 지역에 도입된 수종이다[15]. 장미속은 형태적 특성만으로 종에 대한 식별이 어렵고[16] 변이가 매우 심하여 쉽게 교잡되므로[17], 자생종 9종과 나머지 5종이 전통장미인지 판단하기 위한 준거가 필요하다.

## 3) 전통관목 장미속의 정의

단순히 과거에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전통관목 장미라고 정의할 수 없으며, 자생하거나 적절한 시기에 도입된 수종 중에서 이용되어 문화적 의미를 가진 수목을 파악해야 한다<sup>7)</sup>. 넓은 의미로 자생종에 오래전 ‘귀화한 외래종(Naturalized Plant)<sup>8)</sup>’을 포함하기도 하는데 다양한 기준이 있다. 국립수목원(2016)은 국내 개행(1876년) 이전에 도입된 수종을 ‘사전귀화종(Archaeophyte)’으로 구분하였고[15], 김종원(2013)은 개화기(1890년대) 이전 도입된 것을 ‘고귀화종(Archaeophyten)’으로 명시하였으며[19], American Rose Society(1987)는

육종(育種)이 본격화된 1867년을 기준으로 하여 고전장미(Old Garden Roses)<sup>9)</sup>와 현대장미를 구분하였다[20]. 이러한 측면에서 전통관목은 개항 이전 문화적으로 이용된 수종이라고 판단하였다.

보편적으로 전통관목을 포괄하는 ‘전통수종’은 국가유산 영역에서 향토수종(鄉土樹種)<sup>10)</sup>으로서 역사성, 조화성이 있는 수종을 지칭한다[21]. 즉, 국가유산 수리시방서에서도 전통공간에 식재되었거나 사용되었던 수목을 뜻하는 전통수종은 지역의 독특한 자연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향토수종과 혼용된다[23].

국가유산에 도입 가능한 전통관목 장미속 수종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기록, 문화적 활용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전통관목 장미속은 오랜 기간 경관적, 문화적 또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22] 자생종과 사전귀화종으로 한정한다.

## 4) 전통관목 장미속의 판단 과정

전통관목 장미속의 수종을 구분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고문헌이나 과거의 도상에서 이를 판단하는데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소략된 과거 수목에 대한 기록으로 실체를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5]. 따라서 과거 기록에 대한 식물분류학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24] 수목도감에서 장미속 수종의 형태와 생태적 특징, 분포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였다.

수목 검색표(표 2)를 기반으로 수종별 특징을 이해하였다. 검색표는 자생하거나 널리 퍼진 수종의 형태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목향장미 등 앞서 한정한 국내 장미속 14종이 모두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표 2. 국내 장미속 검색표

1. 줄기가 누워있거나 땅에 바짝 엎드린다.	용가시나무
2. 줄기가 누워 있다. 모상체분비샘이 있다. 산방화서; 화주에 털이 없다(Styles glabrous).	돌가시나무
2. 줄기가 땅에 바짝 붙어있으며, 분비선이 없다. 총상화서; 화주에 털이 있다(Styles pubescent).	
1. 줄기는 직립한다.	노란해당화
3. 화판이 많다. 황색.....	노란해당화
3. 화판이 5개 정도, 백색, 붉은색 또는 자홍색.....	
4. 줄기에 강모; 열매는 길쭉하거나 방추형.....	흰인가목
4. 줄기에 주름이 있으며, 강모가 있거나 없다; 열매는 구형, 난형 또는 타원체	
5. 잎자루에 가시가 있다; 꽃자루에 분비성 모상체	인가목
6. 화판이 5장; 열매는 난형 또는 타원체.....	월계화
6. 화판이 많다; 열매는 구형 .....	
5. 잎자루에 가시가 없다; 꽃자루에 모상체가 없다.	젤레꽃
7. 잎뒷면에 연모가 있다; 턱엽을 빗살모양.....	
7. 잎뒷면에 털이 없거나 연모; 턱엽은 밋밋하거나 치아상.....	해당화
8. 가지에 가시가 많다.....	
8. 가지에 가시가 없거나 적다.	등근인가목
9. 가지에 가시가 거의 없다; 꽃은 백색, 열매는 진한갈색.....	
9. 가지는 잎기부에만 있다; 꽃은 백색 또는 붉은색, 열매는 붉은색.....	생열귀나무

\* 林業試驗所(1966)[25], 장진성 외(2012)[26] 참조

[27], 국가표준식물목록[28], Plants of the World Online<sup>11</sup>[11]에서 수종별 형태 및 분포 정보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식물생태보감 1, 3』[19][29]와 『한반도 수목지 1』[30]을 추증하여 장미속 수종별 생태적 특징과 이용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 5) 전통관목 장미속 수종 규정

사서, 문집류에서 수집한 장미속 수종 정보를 보면, 동일한 명칭이 문현에 따라 서로 다른 식물로 번역되거나, 서로 다른 명칭이 동일한 번역어로 수렴되는 양상을 보였다[31]. 장미속 수종에 대응하는 한자명으로 ‘薔薇’, ‘牆薇’, ‘牆蘿’, ‘月季’, ‘月桂花’, ‘四季’, ‘海棠’, ‘海堂’, ‘玫瑰’, ‘荼蘿’, ‘酴醿’, ‘酴醿’, ‘營實’, ‘疾藜’, ‘野棠’, ‘刺桐’이 나오는데(표 3), 현재와 상이한 수종의 명칭을 파악할 수 있는 문현에 접근하였다.

근대 이전에는 식물 분류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서 하나의 명칭이 지역에 따라 여러 수종을 지칭하거나 국가 간 동명이 물(同名異物)<sup>12</sup> · 동물이명(同物異名)<sup>13</sup> 양상을 보인다[5]. 또한 근대에 박물학 도입과 함께 『조선식물명회(모리 다메조, 1921)』 등에서 식물의 조선명, 조선식 한자명, 서식지와 용도

정리가 시작되었다[32]. 『조선식물향명집(정태현 등, 1937)』은 조선 식물의 향명(鄉名)<sup>14</sup>을 사정하여 국명을 정립함으로써 현재 국내식물목록의 중요한 기틀[33]을 제공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조선산림식물도설(정태현, 1943)』, 『조선식물명집 II(정태현 등, 1949)』, 『우리나라 식물명감(박만규, 1949)』와 같은 식물도감에서 제시한 장미속의 다양한 명칭을 확인해야 한다. 당시 학명에 부여된 국명들은 조선시대 유서, 의약서 외에도 지역명을 참조한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는 『동의보감』 등 전통 의약서<sup>15</sup>, 『물명고(物名攷)』, 『임원경제지』 등 유서<sup>16</sup>, 『한불자전(韓佛字典)』 등 개화기 이후 서적이 포함되었다[33]. 본 연구에서 총 24종의 문현을 대상으로 장미속 수종 명칭의 출현 양상을 분석한 결과, 시기별로 사용된 장미속 수종별 명칭이 다양하게 분포됨을 확인하였다(표 3). 앞서 확인된 번역어와 달리 문현에서 ‘도미(酴醿)’, ‘야당(野棠)’, ‘자동(刺桐)’은 전통관목 장미속의 명칭으로 해석되지 않았다(표 3).

결과적으로 장미와 야장미, 월계화와 사계화, 해당화와 매괴라는 명칭은 명시적으로 구분되지 못한 채 사용되었는데, 이는 중국에서 유래된 명칭과의 혼효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여러 사료에서 이용이 확인되고, 형태 및 생육 특성을 반영하여 젤레꽃, 월계화, 해당화, 생열귀나무 · 인가목, 노란

표 3. 장미속의 한자어 번역과 주석 현황 [34][35]

한자어	번역어	문현 사례
薔薇(花)	장미	가정집(稼亭集) 등
牆薇	장미꽃	동문선(東文選), 박재선생문집(璞齋先生文集), 삼외재집(三畏齋集)
牆蘿	장미	본초강목(本草綱目), 재물보(才物譜)
月季(花)	월계화	대산집(大山集) 등
月桂花	월계화	진연의궤(進宴儀軌) 등
四季(花)	①사계화, ②월계꽃	①간이집(簡易集), ②해동잡록(海東雜錄)
海棠(花)	해당화	사가집(四佳集) 등
海堂花	해당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등
海紅	①해당화, ②해홍화, ③해홍채	①급암시집(及菴詩集), ②해동역사(海東釋史), ③만기요람(萬機要覽)
玫瑰(花)	①매괴, ②해당화, ③젤레꽃, ④장미꽃, ⑤술, ⑥구슬	①운양집(雲養集), ②사가집(四佳集), ③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④백당집(澤堂集), ⑤매천집(梅泉集), ⑥여우집(於于集)
荼蘿(花)	①장미꽃, ②도미꽃	①②사가집(四佳集), ②성호전집(星湖全集), ③열하일기(熱河日記)
酴醿(花)	젤레꽃	환재집(璇齋集) 등
酴醿(花)	①⑤도미화, ②젤레꽃, ③동백꽃, ④여미화, ⑤차꽃, ⑥술	①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②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③대관재난고(大觀齋亂稿), ④환재집(璇齋集) ③④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④⑥성소부부고(惺所覆瓿集), ⑤해동역사(海東釋史), ⑥허백당집(虛白堂集)
營實	①영실, ②장미	①②고운당필기(古芸堂筆記), ②본경속소(本經續疏)
蒺藜	①질려, ②가시나무, ③납가새, ④젤레, ⑤가시풀	①일성록(日省錄), ②계곡집(谿谷集), ③④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④만기요람(萬機要覽), ④동주집(東州集), ④암서집(巖棲集), ⑤향산집(響山集)
野棠(花)	①들 젤레꽃, ②젤레꽃, ③해당화, ④들매꽃, ⑤팥배나무, ⑥야당화, ⑦감당꽃, ⑧산앵두, ⑨들꽃, ⑩돌매꽃, ⑪들 팥배	①계곡집(谿谷集), ②월정집(月汀集), ③여암유고(旅菴遺稿), ④석주집(石洲集), ③④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⑤⑨해동역사(海東釋史), ⑤사가집(四佳集), ⑥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 ⑦점필재집(佔畢齋集), ⑧추강집(秋江集), ⑩금역당집(琴易堂集), ⑪백담집(栢潭集)
刺桐(花)	①젤레꽃, ②엄나무, ③산부용꽃	①성소부부고(惺所覆瓿集), ①완당전집(阮堂全集), ②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③포저집(浦齋集)

해당화를 전통관목 장미속의 수종으로 한정하였다(표 4). 이 때, 생육 여건이 중부 이북 산지인 생열귀나무와 인가목은 열매의 형태, 꽃과 잎에서 세부적 차이를 보이지만 근대 이전에는 구분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27] 두 수종을 함께 명기한다.

## 2. 전통관목 장미속 수종의 명칭

전통관목 장미속으로 규정한 수목의 명칭은 역사시대 교류

를 통해 한반도에 유입되고 변용된 식물 문화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에 기록된 최초의 장미 재배는 한대(B.C. 206~220년)이며[37], 고대에 장미는 덩굴성에 봄철 개화, 월계는 사계절 개화, 매괴는 여름철 개화로 명칭을 구분하였다[38]. 송대 『태평환우기(太平寰宇記)』에는 양원제의 원림 죽림당에 유택의 자장미, 강가의 사출장미, 백마사의 흑장미, 창사의 천엽장미 등 여러 품종이 있었다고 전하며[39], 명대 『군방보(群芳譜)』에는 크게 장미, 매괴, 자미, 목향, 월계 다섯 종류로 나누었으나[37], 이들 모두가 조선에 전래되진 않았다.

표 4. 유서·의약서·근대서적에서 추출된 전통관목 장미속 명칭

문현	전통관목 장미속					
	찔레꽃	월계화	해당화	생열귀나무	인가목	노란해당화
A	棠棣子, 地乙梨					
B	營實, 薔薇, 牛棘					
C		月季花, 四季花, 青竿四季, 桂花	玫瑰花			
D	營實, 野薔薇子					
E		月季花, 월계	海棠, 허당			
F		月季花, 四季花, 青竿四季	海棠花			
G	薔薇	月季花	玫瑰, 해당화			
H	찔리, 장미	月季花, 月月花, 월계				
I	營實, 薔薇, 山棘	月季花, 월계	海棠, 海紅			
J						黃海棠
K	野薔薇, 질느	月季花, 月月紅, 월계, 月桂, 勝春	紫玫瑰, 땃질느, 허당		靈壽木, 扶老杖, 椅, 檳, 인가목	
L	野薔薇, 野客	月季花, 月月紅, 勝春, 瘦客	玫瑰, 徘徊花			黃薔薇
M				海棠花實, 悅口		
N	野薔薇		玫瑰花			黃海棠
O	蒺藜, 질리, 찔에	月季, 월계				
P						黃海棠
Q	질네나무, 荊木		海棠花, 허당화, 忌괴화, 玫瑰花		印歇木, 인가목	
R		월계꽃				
S	野薔薇, 찔네, 營實					
T	찔매나무꽃	월계꽃, 月桂花	허당화, 海棠花			루른월계, 黃月桂
U	찔레나무	월계화	해당화	생열귀나무	인가목	노란해당화
V	가시나무, 찔네나무, 질꾸나무, 질누나무 등	월계화		가마귀밥나무, 해당화, 뱀의찔레, 黃은인가목	민동인가목, 훈난가목, 붉은인가목 등	
W	찔레나무, 野薔薇	월계화, 月季花	해당화, 海棠花, 玫瑰	생열귀나무, 해당화, 뱀찔네, 山刺玫	민동인가목, 인가목	노란해당화
X	찔레나무, 野薔薇	월계화, 月季花	해당화, 玫瑰	뱀찔네, 해당화, 山刺玫	인가목, 산장미( <i>Rosa suavis</i> )	노랑해당화

\* 『조선식물학명집 주해서』[10]와 국가표준식물목록[28] 등을 참조하여 재작성

\* 문현: A. 향약채취월령(1431), B. 향약집성방(1433), C. 양화소록(1471), D. 동의보감(1613), E. 역어유해(1690), F. 산림경제(17C말~18C초), G. 재물보(1789), H. 물보(1802), I. 광재물보(19C초), J. 아언각비(1819), K. 물명고(1824), L. 임원경제지(1830?), M. 북새기략(1843), N. 오주연문장전산고(185?), O. 명물기략(1871), P. 가오고략(1872), Q. 한불자전(1880), R. 식물도설(1908), S. 조선어사전(1920), T. Flowers and Folk-lore from far Korea(1931), U. 조선식물학명집(1937), V. 조선산림식물도설(1943), W. 조선식물명집 II(1949), X. 우리나라 식물명감(1949)

장미는 명대 『본초강목(本草綱目)』에서 ‘담에 기대어 자라는 식물(牆蘿)’이 어원이라고 보았으나, 덩굴성 장미를 통칭하기도 하고 다른 식물을 지칭하기도 하였다[38]. 중국에서 장미 품종을 가리키는 보상화(寶祥花)<sup>17)</sup>, 장춘화(長春花)<sup>18)</sup>도 『사가집(四佳集)』, 『임원경제지』 등 일부 문헌에 한정적으로 등장하여 두루 이용한 명칭으로 보기 어렵고, 단순히 인용한 것인지 실제 도입된 것인지 단언할 수 없다.

### 1) 찔레꽃

가장 이른 시기 문헌인 『향약채취월령(鄉藥採取月令)』에서 ‘棠毬子(당구자)’, ‘地乙梨(지율리)’라는 명칭이 확인된다(표 4). ‘棠毬子’는 『방약합편(方藥合編)』, 『동의보감(東醫寶鑑)』 등 의약서에서 산사(山楂)의 열매로 아가외를 가리킨다고 하였는데[36], 이처럼 열매처럼 붉은 특성을 지닌 점에서 지칭되었다고 보인다. ‘地乙’은 ‘딜’에 대한 음차(音借) 표기이고 ‘梨’는 ‘嬖’에 대한 훈차(訓借) 표기이다[40]. 이후 문헌들에서 ‘찔레꽃’ 혹은 ‘야장미’ 등의 번역으로 연결된다(표 4). ‘營實’은 『향약집성방(鄉藥集成方)』과 『동의보감』 등 여러 문헌에 반복 등장하는 장미를 대표하는 명칭으로서 ‘野薔薇子’ 등 약용 열매를 가리키는 표현이 식물 자체를 지칭하게 된 것이다. 약성에 치중된 명칭은 명대 『준생팔전(遵生八箋)』에도 언급되었듯 관상용 장미와 약용 야장미의 특성을 구분하면서 다른 갈래로 이해한 것이다[39]. 가시가 있는 수목의 이칭으로 사용된 ‘棘’과 ‘찔리’, ‘찔에’를 한자어로 푸 ‘蒺藜(질려)’는 남가새(*Tribulus terrestris L.*)라는 수종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자류주석(字類註釋)』을 비롯한 문헌에서 혼용되었다. 『임원경제지』를 비롯한 몇몇 유서에서 명나라 왕시진의 『군방보(群芳譜)』 등 중국 서적에 나오는 ‘칠자매(七姊妹)’, ‘십자매(十姊妹)」<sup>19)</sup> 등 찔레꽃과 유사한 수종을 인용하였다[35]. 이러한 명칭의 다양화는 18세기 이후 중국의 정원 식물지식과 다양한 정원 관련 서적들의 증가 등 지식 정보 발전과 관련되어 있다[41].

“영실은 장미의 씨앗이다 … 꽃은 흰색과 분홍색이 있다.”

청나라 추주(鄒澍). 『본경속소(本經續疏)』 2권[36]

“장미(薔薇) 일명 자홍(刺紅), 산조(山棗), 우극(牛棘) … ‘군방보(群芳譜): 주천장미 … 하화장미 … 자매퇴 … 황장미 … 자장미 … 흑장미 … 육홍장미 … 분홍장미 … 장사천엽(長沙千葉) … 별도로 야장미(野薔薇)가 있다. … 보상(寶相), 금발우, 불견소, 칠자매(七姊妹), 십자매(十姊妹)와 같은 장미는 생김새 서로 비슷하여” \*군방보 인용

서유구(徐有渠).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예원지(藝畹志)[35]

송대에는 꽃품(花品)과 격운(格韵)을 따지면서 백장미를 소박하고 우아하다고 보았는데[38], 백장미는 조선시대 문현인 『고운당필기(古芸堂筆記)』에도 등장하며, 『임하필기(林下筆記)』에는 사시향관(四時香館)에 이유원이 백장미를 심었다고 전한다. 이곳은 남양주 천마산 기슭의 가오별업(嘉梧別業)이고, 서식 특성상 흰인가목이나 둥근인가목으로 보기 위해 무리가 있으므로 찔레꽃이라고 추정된다. 당대 귀한 여려 수종을 심은 그의 화훼 취미를 볼 때, 다르게 해석될 여지는 있다.

중국에서 장미원의 ‘삼걸(三傑)’을 찔레꽃(多花薔薇), 매괴, 월계라 하였으며[42], 찔레꽃을 흔히 야장미나 다화장미라는 명칭으로 불렀다. 반면에 조선시대의 ‘야장미’는 이름 그대로 들에 피는 장미로, 여름철 백색과 연분홍색의 꽃들이 향기를 풍긴다고 묘사된다[35].

“그 열매가 영실성 같아 영실(營實)이라 이름한 것입니다. 봄에 난 순이 자그마할 때 따서 껍질을 벗기고 먹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질려(蒺藜)라고도 하고 그 열매는 까치밥이라고들 합니다.”

유득공(柳得恭). 『고운당필기(古芸堂筆記)』 1권.

영실(營實)[35]

“사시향관(四時香館)에는 꽃나무가 수백 종이나 된다. 개중에 백장미(白薔薇), 백모란(白牡丹), 백련화(白蓮花)는 소동파(蘇東坡)의 세 가지 흰 음식인 쌀밥, 무나물, 소금에 비길 만하다.”

이유원. 『임하필기』 벽려신지(薛荔新志)[35]

“《화경(花鏡)》에서는 야장미는 설객(雪客)이라고도 하는데, 잎이 가늘고 꽃은 작으며, 몸체에 가시가 많이 나있고, 울타리 사이에서 덩굴로 난다. 꽃은 순홍색과 분홍색 두 가지가 있는데, 모두 꽃판이 하나어서 그다지 볼 만하지는 않지만 아주 달콤한 향기가 나는 것이 매괴(玫瑰)와 비슷하다. … 오함분(伍涵芬)의 《독서지(讀書志)》에서는 “흰 야장미의 꽃을 차와 함께 섞어서 물에 달여 복용하면 학귀(瘧鬼)를 몰아낼 수 있다.”라고 하였다.”

청나라 조학민(趙學敏). 『본초강목습유(本草綱目拾遺)』 권7  
野薔薇(야장미)[36]

“여름날 전원의 여러 가지 흥취를 가지고 범양 이가의 시체를 모방하여 이십사 수를 짓다… 들장미(野薔薇) 눈처럼 하얗게 피었네그려.”

정약용. 『다산시문집』 천진소요집(天真消搖集)[35]

### 2) 월계화

월계화는 중국에서 월계화, 향수월계(香水月季), 양엽월계

(亮葉月季)로 구분하였으며[43], 한대부터 궁원에 사천, 광동 등 다양한 월계를 식재하였다[37]. 송대 송기(宋祁)의 『월계화』는 사계절 연홍색 꽃이 피었다. 북송대 『사천지(四川志)』에 따르면 성도현에 도미, 즉 향수월계는 백옥완(白玉碗), 출로은(出爐銀), 운남홍(雲南紅) 등 백색, 은분홍색, 홍색 세 종류가 있었다[43]. 명대 왕상진 『어정폐문재광군방보(御定佩文齋廣群芳譜)』에는 장춘화, 월월홍 등 다양한 품종이 기록되었고, 청대 『월계화보(月季花譜)』에는 이를 육종하는 기술이 묘사되었다.

월계화는 대부분의 문헌에서 ‘月季(桂)’로 표기되었다. 조선에서는 사계절 내내 피는 특징을 따서 사계장미로 인식하였으며, 『물보』에는 ‘월월화(月月花)’라고 기록되었다. 『임월경제지』에서 『군방보』를 인용하면서, ‘月月紅(월월홍)', '勝春(승춘)' 등의 명칭이 함께 알려졌다. 꽃이 피는 주기나 관상적 가치에 기반한 명명 방식이 유입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명대 조학전(曹學佺)의 『촉중광기(蜀中廣記)』에는 조선의 사계화(四季花)와 중원의 월계화가 같은 것임을 인지하였으며, 눈과 서리가 잘 내리지 않는 지방에서 사계절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중국에서 사계화는 접골초를 이르는 말[35]로 『조경지(肇慶志)』와 『본초강목습유(本草綱目拾遺)』에서도 꽃이 작고 희며 3월에 피어 9월까지 가는 다년생 초본을 지칭한다.

조선시대 사계화는 『양화소록(養花小錄)』에서 월계화, 청간사계(青竿四季)와 유사한 종이나 생태적 특성이 다른 것이라고 명시하였으며, 『임월경제지』에서 이를 인용하였다. 또한 조선에서는 매달 피는 월계화와 달리 사계화는 계절마다 한번씩 개화하는 식물로 이해하였다. 서거정은 그의 시문에서 사계화를 ‘계절과 무관하게 피어나는 꽃’이라고 기술하며[35], 월계화와 구분하였다. 즉, ‘사계’와 ‘월계’가 혼용되거나 상호 대체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명칭은 월계화와 사계화가 시간성과 시적 형상(形象)의 교차점에서 문학적으로 동일하게 정착되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월계화는 장춘화(長春花), 월월홍(月月紅), 착설홍, 승춘(勝春), 수객 등이라고도 한다.”

청나라 왕호(汪灝) 등.  
『어정폐문재광군방보(禦定珮文齋廣羣芳譜)』[35]

“사계화는 접골초(接骨草)라고도 한다.”

명나라 왕상진(王象晉). 『군방보(羣芳譜)』[35]

“어찌하여 이 꽃이 화려하고 아름다우며 사계절(四時) 내내  
짙은 연홍색(深淺紅) 꽃이 피어나는가?”

송나라 송기(宋祁). 『익부방물찬(益部方物贊)』  
월계화(月季花)[35]

“월계화(月季花)는 바로 동방에서 이른바 사계화(四季花)라는 것인데, 푸른 넝쿨에 빨간 꽃(紅蕊)이 핀다. 촉 지방에는 눈과 서리가 잘 안 내리므로, 이 꽃은 일 년 열두 달, 달마다 한 번씩 피울 수 있다.”

명나라 조학전(曹學佺). 『촉중광기(蜀中廣記)』  
방물기(方物記) 목(木)[35]

“월계사계(月季四季): 월계(月季) · 사계(四季)는 동일한 꽃. 월계화 혹은 사계화라 부르기도 한다.”

서유문(徐有聞). 『무오연행록(戊午燕行錄)』 5권[35]

“사계화(四季花) … 네가 사계절을 차지하여 피는 게 가련하구나”  
서거정(徐居正). 『사가집(四佳集)』 4권. 영물(詠物)[35]

“모습이 붉고 예뻐 네 계절에 편안하네 …” 사계화(四季花)를  
읊은 것이다

열성어제(列聖御製) 5권 중 성종대왕(成宗大王) - 비해당  
사십팔영(匪懈堂四十八詠)[35]

### 3) 해당화

『훈몽자회(訓蒙字會)』의 ‘댄딜위’와 『물명고』의 ‘댄질늬’가 ‘海棠’에 대응된 것을 보면, 이는 지금의 해당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된다[10]. 해당화는 짤레와 유사한 종으로 여겨진 것인데, ‘玫瑰’<sup>20</sup>라는 중국 명칭과 혼용되었다[44]. 해당화가 중국에서 들어온 서로 다른 수목을 가리키는 ‘玫瑰’, ‘海棠’, ‘海紅’으로 불린 것은 근대 이전 명명 체계의 혼효 양상을 보여준다.

식물명으로서 매괴(玫瑰)에 대한 가장 이른 기록은 동진의 『서경잡기(西京雜記)』인데, 열매가 화제주(火齊珠)처럼 붉고 둥글며, 꽃의 색과 향기가 보옥의 아름다움에 대응되었다[45]. 매괴는 ‘배회화(徘徊花)’ 외에도 ‘옥예(玉蕊)’, ‘자옥(紫玉)’, ‘자객(刺客)’ 등의 이명이 있었으며, 당대 『자가집(資暇集)』, 남송 『서박(鼠璞)』에서 매괴를 ‘매회(枚回)’라고 부르는데, ‘瑰’는 회(回)나 괴(壞)로 읽으며, 회로 읽힐 때는 식물을 칭한다고 하였다[45]. 명대 『군방보(群芳譜)』에 분홍색, 벽색(碧)<sup>21</sup>에 향이 짙고 가시가 많은 특성을 가진다고 기록되었다. 조선에서 매괴와 해당이 중국에서 어떤 식물인지 추정한 문헌으로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수세비결(壽世祕訣)』, 『임원경제지』는 매괴와 해당이 다름을 설명하였고 [46], 『화암수록』은 자형화의 한 종류, 『임하필기』는 『군방보』에 산단(山丹)<sup>22</sup>이 해당이라고 되어있음을 언급하였고, 『담현서(湛軒書)』에는 중국의 해당화가 조선의 산단화와 같다고 하였다. 이들 모두 조선에서 흥장미, 자장미를 해당이라 하는 것 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중국의 해당(海棠)과 우리나라의 해당(海棠)은 이름은 같으나 그 종(種)은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해당이라 부르는 것은 곧 매괴(玫瑰)로, 중국에서 말하는 장미(薔薇)의 부류이다. … 우리나라에는 본래 이러한 종류(중국의 해당)가 없다. 다만 장미(薔薇)와 비슷한 종류 하나가 있어 이를 해당이라 부른다. 그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 붉은 매괴화(玫瑰花)다. 겹꽃(千葉)과 흘꽃(單葉), 바닷가에서 나는 종류까지 포함하여 모두 세 가지가 있다. … 하지만 바닷가에서 나고, 그 열매가 아가위를 닮았으므로 열매의 모양에서 유래하여 해당(海棠, 바다의 아가위)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만물편(萬物篇). 해당매괴변증설(海棠玫瑰辨證說)[35]

“매괴화(玫瑰花) 우리나라에서는 해당화라고 하는데, 향기가 있는 것이며 향기가 없는 해당화는 아니다.”

이창우(李昌雨). 『수세비결(壽世祕訣)』 권5[36]

“자색과 백색 두 종이 있는데, 자색은 헐분으로 들어가고, 백색은 기분으로 들어간다.”

청나라 조학민(趙學敏). 『본초강목습유(本草綱目拾遺)』 권7  
玫瑰花(매괴화)[36]

“매괴(玫瑰) 일명 배회화(徘徊花) … ‘군방보(群芳譜): 관목류이다. 잎이 가늘고 가시가 많아 장미와 비슷하다. 줄기가 짧고, 꽃은 또한 장미와 비슷하다. 색깔은 옅은 자색이다 … 송산 깊은 곳에는 벽색(碧色)도 있다.’ … 우리나라에는 매괴가 없으니, 연경에서 사 와야 한다”

서유구(徐有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예원지(藝畹志)[35]

“해당은 향기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해당은 향기가 있다. … 저 세속에서 말하는 해당화는 이름 없는 들꽃이 아니라면, 또한 자형화의 한 종류일 것입니다.”

유박(柳璞). 『화암수록(花庵隨錄)』[35]

“창주의 해당화만이 유독 향기가 있다. … 우리나라에는 이 품종이 없으니 한번 볼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 자장미(紫薔薇)를 해당이라고 하며 향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 또 세상 사람들은 모두 홍장미(紅薔薇)를 해당(海棠)이라고 하는데, 『군방보(群芳譜)』에는 산단(山丹)이 해당으로 되어 있다.”

이유원. 『임하필기』 춘명일사(春明逸史)[35]

“해당화(海棠)는 우리 나라 산단화(山丹花)와 꼭 같은데, 다

만 색깔이 연봉홍(淡紅)에 꽃잎이 좀 큰 편이다.”

홍대용(洪大容). 『담현서(湛軒書)』 화초포(花草舗)[35]

“방비(芳菲)를 월왕대로 옮겨 심었는데 장미꽃(薔薇)과 비슷해서 마침 한 데 심었다. … 누가 그것을 매괴(玫瑰)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렀을까”

당나라 서인(徐寅). 『서정자시부(徐正字詩賦)』[35]

“매괴(玫瑰)는 향을 맡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장식할 수도 있다.”

명말청초 이어(李漁). 『한정우기(閑情偶寄)』[45]

“아침에 점방(店房)에서 해당화(海棠花)를 보았다. 잎사귀는 치자(施子) 같았고 꽃은 철쭉꽃 같았다. 꽃송이는 작았고 꽃잎은 다섯이었으며, 줄기는 희고 향기가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해당화라 하는 것은 향기가 있고 가시가 많은데, 곧 홍장미(紅薔薇)이다. 또 매괴(玫瑰)라고도 한다.”

이덕무. 『청장관전서』입연기 상(入燕記 上)[35]

#### 4) 생열귀나무 · 인가목

생열귀나무는 명대 『학포잡소』에 홍자매(紅刺梅)로 언급되어[46], ‘悅口(열구)’는 열귀를 가리키며, 아가위의 함경도 방언으로서 열매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추정한다[10]. 이는 젤레를 당구자라고 기록한 것과 유사하게 붉은 열매를 특징으로 지칭한 것이다. 뱀젤네, 뱀의젤레는 젤레와 비슷한 점에 더해 뱀이 서식하는 곳과 생육환경이 유사하거나, 젤레에 비해 쓰임새가 낫다는 점을 명칭에 결부시킨 것으로 보인다. 『조선식물명집 Ⅱ』 등에 기술된 ‘山刺玫(산자매)’라는 한자명은 산에서 자라는 매괴를 의미하며, 종종 해당화와 교잡되어 천엽(千葉)을 가졌다 것으로 여겨진다. 『오주연문장전산고』에 나오는 가시가 많고 희며, 줄기가 붉고 잎은 둑근 해당화[36]은 중국의 홍자매(紅刺玫, 겹해당화)를 지칭한 것이며, 물에서 자라는 매괴는 생열귀나무와 인가목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송대에는 꽃품(花品)과 격운(格韵)을 따지면서 홍장미(紅薔薇)를 현란하다고 평가하였으며[41], 이를 다른 시문이 유래되었다. 조선시대 홍장미와 자장미는 『악학궤범』 연화대복식도 설, 『임하필기』, 『임원경제지』, 『동문선』,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등에서 언급되었으며[46], 해당화류를 지칭하였다. 다만 홍장미가 문학적 수사로 표현된 경우도 있으므로, 생태적 특징을 근거로 수종을 파악하였다. 『오주연문장전산고』에 기록된 수종은 해당화나 생열귀나무의 겹꽃 형태<sup>23)</sup>와 유사한데, 중국에서 매괴 종류로 불린다고 언급하였다.

“붉은 모란, 흰 모란, 질붉은 모란, 붉은 작약, 흰 작약, 질붉은 작

약, 어류(御榴)와 옥매(玉梅), 황장미(黃紫薔薇), 지지(芷芝), 동백(冬柏), 아야! 어우러져 피어 있는 광경”  
정인지 등, 『고려사』 한림별곡(翰林別曲)[35]

“황장미 · 홍장미(黃紅薔薇)는 흰 거위의 깃에 녹밀을 달여 물들여 ...”

성현, 『악학궤범』 연화대복식도설(蓮花臺服飾圖說)[35]

“물에서 자라는 것은 무리를 이루어 줄기가 한 길 넘게 자라고, 가느다란 가지가 많으며, 줄기는 붉고 가지는 희며 잎은 둥글고 잘게 나 있다. 꽃송이를 이루며 꽃이 장미와 같다. 겹꽃과 홀꽃 모두 4월과 5월에 피고 붉으며 향기가 있다. ... 『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를 살펴보면, 매괴화(玫瑰花)는 장미과에 속하며 가지가 많고 4월에 꽃이 피며 홀꽃은 흰색과 자색꽃이 있고, 꽃 크기가 매우 크다. 또한 흥자색의 겹꽃이 있는데 그 꽃은 다소 작으나 향기가 있다 하였다. 이것이 어찌 우리나라의 해당이 아니겠는가.”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만물편(萬物篇). 해당매괴변증설(海棠玫瑰辨證說)[36]

### 5) 노란해당화

노란 장미(黃薔薇)는 중국 『전당시(全唐詩)』에서 언급되며, 시령, 담장 주변, 정자의 뒤쪽 등 수직 구조물에 오르는 특성이 표현되었다[38]. 노란색의 매괴는 명대 『군방보』와 『학포

표 5. 전통관목 장미속의 현재 명칭 [10][27]

한국 고문헌	근대 식물도감	현재 국명 · 학명	
야장미(野薔薇), 장미(薔薇), 영실(營實), 당구자(棠毬子), 산극(山棘), 우극(牛棘), 질려(蒺藜), 자율리(地乙梨)	찔레나무(1937), 가지나무 · 질누나무 등(1943), 찔레나무 · 野薔薇(1949), 들장미 · 찔룩나무(1963)	찔레꽃( <i>Rosa multiflora</i> Thunb. )[47]	
월계화(月季花), 월계화(月桂花), 사계화(四季花), 월월홍(月月紅), 승춘(勝春), 수객(瘦客)	월계화(1937), 월계화(1943), 장춘화 · 보상화 · 월월홍(1972)	월계화( <i>Rosa chinensis</i> Jacq. )[12]	
해당(海棠), 매괴(玫瑰), 해홍(海紅), 배회화(徘徊花)	해당화(1937, 1966) 해당화 · 玫瑰(1949)	해당화( <i>Rosa rugosa</i> Thunb. )[47]	
홍장미(紅薔薇), 자장미(紫薔薇), 자매괴(紫玫瑰)	인가목(1937, 1966), 민동인가목 · 흰닌가목 등(1943), 산장미(1949)	인가목( <i>Rosa acicularis</i> Lindl. )[47]	
	생열귀나무(1937, 1966), 가마귀밥나무 · 좀붉은인가목(1943), 범질네 · 山禡政(1949), 생열귀장미(1982)	생열귀나무( <i>Rosa davurica</i> Pall. )[47]	
황장미(黃薔薇), 황해당(黃海棠)	노란해당화(1937, 1966)	노란해당화( <i>Rosa xanthina</i> Lindl. )[27]	

잡소(學圃雜蔬), 청대 『광군방보(廣羣芳譜)』에 등장한다. 자색의 매괴보다는 약간 작다고 묘사된다. 고려 『한림별곡(翰林別曲)』에서는 황장미가 자장미, 모란, 옥매와 함께, 『조선왕조실록』에는 흥도와 함께 피어있는 것으로 묘사되었고, 『사가집』에는 흥도는 쪼였는데 황장미는 피어있는 모습이 묘사되었다. 노란해당화는 5월에 개화하므로 시기가 일치한다. 조선에는 목향장미와 같은 황색 장미가 없었으므로 노란해당화를 표현한 것으로 여겨진다. 노란해당화라는 국명은 『조선식물향명집』에 근거하며, 『아언각비』에 언급된 황해당(黃海棠)과 동일한 수종이라고 추정된다.

“연경(燕京)에서는 노란 꽃(黃花)이 피는 매괴가 있는데, 꽃 크기가 자색(紫) 매괴보다 약간 작다.”

청대 왕호(汪灝) 『광군방보(廣群芳譜)』

“그런데 천사가 손으로 흥도(紅桃)와 장미(薔薇) 두 가지를 꺾어 어관(御冠)에다 꽂으면서 ‘전하의 양쪽에 누른 빛과 분홍 빛이 어른거린다.’고 하였으므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광해군 4년 임자(1612) 9월 3일(갑오)[35]

“한창 좋은 봄기운이 장미로 옮겨갔구나, 황랑(黃娘)은 좋고 일어나 힘없이 간드러져라.”

서거정(徐居正). 『사가집(四佳集)』 4권. 빨간 복사꽃은 이미 쪼였고 노란 장미꽃(黃薔薇)이 성하게 피었으므로 짓다[35]

“노란 장미꽃(黃薔薇) 아래서 아손과 희학질하노라.”

서거정(徐居正). 『사가집(四佳集)』 46권. 즉사(卽事)[35]

“해당에는 서부해당, 첨경해당, 수사해당, 목과해당, 추해당, 황해당(黃海棠)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정약용(丁若鏞). 『아언각비(雅言覺非)』[36]

### III. 결론

본 연구는 외래수종이라고 이해되기 쉬운 장미를 대상으로 하여 조선시대와 근대 사료를 기반으로 전통관목 장미속 (*Rosa* spp.)의 수종을 규정하고, 다양한 장미 명칭의 유래를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국가표준식물목록과 국가생물종목록을 기준으로 국내 장미속의 범위를 14종으로 한정하고, 유서, 의약서, 도감, 근대 서적에서 이용빈도가 높고 문화적 가치를 지닌 수종을 파

악한 결과, 젤레꽃, 월계화, 해당화, 생열귀나무·인가목, 노란해당화를 전통관목 장미 수종으로 규정하였다.

둘째, 전통관목 장미속에 대응하는 한자명으로 ‘薔薇’, ‘牆蘿’, ‘月季’, ‘月桂花’, ‘四季’, ‘海棠’, ‘海堂’, ‘玫瑰’, ‘荼蘼’, ‘酴醿’, ‘酴醿’, ‘營實’, ‘蒺藜’, ‘野棠’, ‘刺桐’ 등 다양한 명칭이 등장하였다. 중국에서 전래된 수목명인 ‘薔薇’, ‘月季花’, ‘玫瑰’, ‘海棠’ 등과 약재명인 ‘營實’, ‘棠毬子’과 함께 ‘찔리’, ‘댓질느’ ‘悅口’ 등 향토명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명칭의 혼재는 근대 이전 체계적 식물분류가 미비했던 현실에서 기인한다.

셋째, 수종별 명칭을 살펴보면, 젤레꽃은 생육지(野薔薇, 野客), 젤림(찔리), 질느, 질리, 젤에, 젤네, 蒺藜, 地乙梨), 가시(牛棘, 山棘, 荊木), 열매(營實, 棠毬子, 野薔薇子)와 관련된 명칭이 사용되었다. 월계화는 상징(瘦客), 개화(青竿四季, 月月花, 月桂花, 四季花, 勝春) 특성으로 명명되었고, 사계화와 혼용되었다. 해당화는 생육지(海棠花, 海紅), 열매(玫瑰花)와 관련한 명칭이 전래되었는데, 이는 중국의 원예 지식을 수용하면서 조선의 생태적 여건에 맞게 재해석한 결과이다. 생열귀나무·인가목은 생육지(산장미), 열매(海棠花實), 향명(悅口, 印歌木), 이용(靈壽木, 扶老杖) 관련 명칭으로 불렸고, 황장미는 주로 해당화를 말하나 생열귀나무의 겹꽃을 지칭하기도 하였다. 노란해당화는 화색(黃薔薇, 黃海棠, 黃月桂, 루른월계) 특성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넷째, 근대 식물도감보다 앞서 조선시대 유서에서 장미속 수종 명칭의 혼효 양상을 언급하고 이를 정리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는 중국으로부터 유입하는데 그치지 않고 조선의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고증하고 재해석했던 식물 문화의 단편을 보여준다.

살펴본 바와 같이 장미속 6개 수종이 전통관목으로서 정체성을 갖추었음을 확인하였다. 현대적 활용을 모색하며 전통장미의 식재 양상을 도출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주 1) 1967년부터 7년간 진행된 ‘이충무공 현충사 조경공사’가 최초의 국가유산 조경 복원·정비 사업이라고 이해된다[1].

주 2) 외래종은 개항(1876)에 초점을 맞추어 구분하며, 개항 이전에 유입된 사전귀화식물(Archaeophyte)을 제외한 신귀화식물을 의미한다[20].

주 3) 『국가표준식물목록』은 2012년 채택된 ‘조류, 균류와 식물에 대한 국제식물명명규약(엘버른규약)’에 따라 학명을 명명하고 있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국내에 분포하는 식물의 학명과 국명을 목록화한다[13].

주 4) 『국가생물종목록』은 2010년 채택된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의 실제적 이행을 위해 구축되었으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생물자원의 목록을 확립하여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14].

주 5) 『국가표준식물목록』은 국가 또는 언어권에서 주요하게 사용하는 식물명칭을 ‘국명’이라고 하며 그중 대표적 명칭을 ‘추천명’으로 제시하고 있다[13].

- 주 6) 노란해당화는 분포에 대한 해석에 의하여 한국 자생종으로 기입되기도 한다[11] [12].
- 주 7) 민속식물학에서 자생/문화식물(seminatural plants), 문화식물(cultural plants)로 구분하며, 인간의 도움으로 지속가능한 식물이다[18].
- 주 8) 귀화식물은 침입외래식물 중 자연생태계에 적응하여 지속적으로 개체군을 형성하고, 10년 이상 생육, 번식, 확산을 통해 자생종과 구분 없이 융화되어 자라는 종을 의미한다[15].
- 주 9) 고전장미는 1892년에 설립된 미국장미협회에서 유래한 기준이며, 1867년 최초의 현대 장미인 La France가 도입되기 전에 존재했던 장미라고 정의한다[20].
- 주 10) 향토종은 국가유산을 포함한 조경 영역에서 권장된다. 조경기준 상 식재 수종은 지역의 향토종을 우선 사용하고, 자연조건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13호, 조경기준 2018. 7. 3., 일부개정]
- 주 11) 큐 왕립식물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식물분류 DB.
- 주 12)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에서 사용하는 식물명을 차용하였으나, 실제 가리키는 식물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을 두어 동명이물의 문제가 나타났다[5].
- 주 13) 동일한 종이 여러가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 주 14) 조선 각지에서 수집한 헝문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조선명’과 ‘지방에 따른 방언’을 의미하는데, 다수의 언중이 형성한 명칭을 찾아 통유성(通有性)을 실현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33].
- 주 15) 전통 의약서는 본초학의 관점에 따라 식물명을 분류하였는데, 주로 약성(藥性)을 기준으로 하여 근대 식물 분류학에서는 이를 재분류하고 명칭을 정하는 작업이 필요하였다[33].
- 주 16) 조선시대 유서는 식물의 형태나 쓰임새를 상세하게 고찰하여 분류하였으나[33], 근대 식물 분류와는 다르게 여러 이름을 파악하는 것에 그쳤다.
- 주 17) 고려의 『준생팔전(遵生八箇)』에서 보상화는 장미보다 송이가 크고 꽃이며 대홍, 분홍 2종이 있다고 하였다.
- 주 18) 가마쿠라 시기 『명월기(明月記)』에서 장춘화(長春花)와 장미를 각각 언급하였으며, 여기서 장춘화는 중국의 월계를 가리킨다[43].
- 주 19) 『준생팔전』에서 십자매는 한 꽃봉오리에서 10송이가 나오며, 봉오리가 오래되면 색이 바뀌어 홍색, 보라색, 백색, 짙은 자주색 등이 섞여 핀다고 하였다.
- 주 20) 『한서(漢書)』에서 매괴(玫瑰)는 화제주(火齊珠)라 하였으며, 『자하집』에는 瑰는 회(回)로도 읽는데, 이는 琥珀(보옥)과 구별하여 식물은 梅로 읽는다고 하였다[45].
- 주 21) 『군방보』에서 승산의 벽색(碧)은 색상이 불분명하다. 『해동농서(海東農書)』에 벽도(碧桃)는 꽃으로 이름을 취했다 했고, 『본경소증(本經疏證)』에 길경(桔梗)을 자벽색(紫碧)이라 하였고[36], 송대 구종석(寇宗奭)은 모란이 홍색과 짙은 삼벽색(深碧)이 있다 했으나[36], 벽색의 꽃은 오간색(五間色)으로서 백색이 도는 밝은 청색 계열로 여겨진다.
- 주 22) 산단(山丹)은 산당화를 가리키며, 지금은 명자꽃(*Chaenomeles speciosa* (Sweet) Nakai)으로 등록되어 있다[28]. 조선에서 명자나무도 해당이라 불렸음은 『조선삼림식물편朝鮮森林植物篇』에서도 나타나는데, 식민통치기 한반도에서는 풀명자나무와 노랑해당화 두 종이 해당화라는 명칭으로 불렸다고 한다[46].
- 주 23) *R. maikwai* H. Hara 혹은 *R. rugosa* var. *plena* Regel. 생열귀나무와 해당화의 교잡종은 꽃이 만첩이며, 곧은 가지와 굽은 가지가 보이고, 소지가 자주색에 텔이 없다. 자연에서도 해당화 겹꽃은 일부 관찰되며[46], 『오주연문장전산고』에 나온 매괴의 겹꽃 부류는 이 수종이라고 판단된다.

## REFERENCES

- [1] 김민선(2022). 전통조경수리업의 설계 및 시공 밭주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 문화재청(2022). 전통조경 유형별 맞춤형 관리방안 마련 기초연구.
- [3] 진민령, 정명석, 심지연, 이해숙, 이경미, 진혜영(2020). 전라도 지역 문화재 지정 민가정원의 현황 및 조형특성.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8(4): 25–38.
- [4] 황중락, 윤영활(1992). 한국 수목명의 유래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0(1): 73–104.
- [5] 공광성(2017). 한국 고전에 나타난 식물명의 혼효 양상 연구. 경상대학 박사학위논문.
- [6] 김승민(2014). 조선시대 화훼식물의 이용과 상징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2(2): 134–147.
- [7] 정우진·권오만·심우경(2014). 명대 원림서에 기술된 죽병(竹屏)의 활용과 그 의미.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2(1): 83–92.
- [8] 배다니엘(2017). 중국 고전시에 나타난 장미 묘사 분석. 세계문학비교연구 6: 89–108.
- [9] 김소영(2019). 한국 고전 문헌의 장미 속(*Rosa* spp.) 식물 한자명 사용 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0] 조민재, 최동기, 최성호, 심미영, 지용주, 이웅 공편저(2021). 한국 식물 이름의 유래 : 『조선식물향명집』 주해서. 파주: 심플라이프.
- [11] Plants of the World Online(<https://powo.science.kew.org>).
- [12] 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https://www.gbif.org>).
- [13] 산림청 국립수목원(2020). 국가표준식물목록 - 자생식물.
- [14] 국립생물자원관(2020). 국가생물종목록 I. 식물·균류·조류·원핵생물.
- [15] 산림청 국립수목원(2016). 한국 침입외래식물의 이해.
- [16] G. Wang(2005). A study on the history of Chinese roses from ancient works and images. ISHS Acta Horticulturae 751: IV International Symposium on Rose Research and Cultivation.
- [17] 김상용(2010). 한국산 장미속의 계통분석.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8]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2022). 신라왕경의 식물.
- [19] 김종원(2013). 한국 식물 생태 보감. 1. 주변에서 늘 만나는 식물. 서울: 자연과생태.
- [20] American Rose Society(1987). American Rose Society Handbook for Selecting Roses. Shreveport, La. : American Rose Society.
- [21] 국가유산청(2024). 2024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 [22] 국립문화재연구소(2010). 사적지 조경정비 기준화립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 [23] 문화재청(2022). 전통조경 복원정비 기준 마련 연구(1차).
- [24] 신현철(2014). 전통문화 이해를 위한 식물의 분류학적 실제 규명 필요성 – 산수유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전통문화연구 13: 185–208.
- [25] 林業試驗所(1966). 한국수목도감(韓國樹木圖鑑) – Illustrated woody plants of Kore. 서울: 林業試驗場.
- [26] 장진성, 김휘, 길희영, 이주영(2012). 한반도 수목 필드가이드. 고양: 디자인포스트.
- [27]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http://www.nature.go.kr>).
- [28] 국가표준식물목록(<http://www.nature.go.kr/kpni>).
- [29] 김종원(2025). 한국 식물 생태 보감. 3. 바닷가에서 만나는 식물. 파주: 자연과생태.
- [30] 산림청 국립수목원(2017). 한반도 수목지 Silvics of Korea 1.
- [31] 권경열(2012). 한문고전번역의 특성과 과제. 인문학논총 28: 67–88.
- [32] 이정(2015). 식민지 과학 협력을 위한 중립성의 정치: 일제강점기 조선의 향토적 식물 연구. 한국과학사학회지 37(1): 265–298.
- [33] 조민재, 이웅, 최성호(2018). 『조선식물향명집』 “사정 요지”를 통해 본

- 식물명의 유래. 한국과학사학회지 40(3): 551–608.
- [34] 한국학종합DB(<https://db.mkstudy.com>).
- [35]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 [36] 한의하고전DB(<https://medicclassics.kr>).
- [37] 王国良(2008). 中国古老月季演化历程. 中国花卉园艺 15: 10–13.
- [38] 任健(2019). 中国古代文学蔷薇意象与题材研究. 南京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 [39] 陈意微, 袁晓梅(2017). 中国传统园林蔷薇造景历史初探. 风景园林 24(10): 110–116.
- [40] 조향범(2014). ‘아가위’와 ‘찔레’의 어원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학회 89: 5–23.
- [41] 김동현, 이원호(2020). 조선시대 정원의 지식정보 전개와 수용 - 15~19세기 편찬된 정원 및 화훼 관련서적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 학회지 38(1): 1–20.
- [42] 나카무라 고이치 저, 조성진, 조영렬 역(2004). (한시와 일화로 보는) 꽃의 중국문화사. 서울: 뿌리와 이파리.
- [43] 張家骥(1999). 中国明花. 昆明: 云南人民出版社.
- [44] 팽철호(2014). 한국에서 다른 식물로 인식되는 중국문화 속의 식물(2) – 해당화, 두견화, 척촉의 경우. 중국어문화 67(-): 65–84.
- [45] 王琛瑤, 张后翔, 罗乐(2021). 中国古代“玫瑰”含义考. 中国园林 37(12): 122–126.
- [46] 국립수목원(2018). 해당화의 자연사와 문화사. 서울 : THE-D.
- [47] 국립생물자원관(<https://species.nibr.go.kr>).

원고 접수 일: 2025년 6월 18일  
심사 일: 2025년 6월 23일 (1차)  
게재 확정 일: 2025년 6월 23일  
0인 익명 심사필, 0인 영문 abstract 교정필